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### [미국 경제]

- WSJ: 연준 12월 금리 인하 불투명...고금리냐 고용 둔화냐 이견
- Bloomberg: 신용 등급 낮은 자동차 대출자들의 연체율 최고치
- Bloomberg: 아틀란타 연준 총재, 2월 은퇴...금리 인하 신중 주의자

### [미국 금융]

- WSJ: 셧다운 종결 임박해 주식 시장 회복세... 여전히 불확실

### [트럼프 행정부]

- Bloomberg: 연방 하원, 역사적인 정부 셧다운 종결 표결한다

### [무역 전쟁]

- Bloomberg: 연방재무장관 “트럼프, 커피와 바나나 관세 인하 추진”

### [오일]

- WSJ: IEA, “오일과 가스 수요 2050년까지 상승한다”

### [중국경제]

- WSJ: 미국의 반도체 수입 규제, 중국에 타격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셧다운 끝나도 항공 운항 회복 시간 걸린다

### [미국 경제]

#### **WSJ: The Fed Is Increasingly Torn Over a December Rate Cut**

연준 12월 금리 인하 불투명... 내부 이견

- 연준 내부의 이견이 향후 통화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. 고물가 지속과 노동시장 둔화 사이에 어느 쪽이 더 문제냐로 갈등을 빚고 있다.
- 연준은 지난 9월에 금리를 0.25% 인하했으며 올해 10월 후반에도 0.25% 인하했다. 현재 기준 금리는 3.75% ~ 4%.
-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노동 지표와 인플레 보고서 발표가 중단된 상황으로 연준 내부의 이견은 혼란한 입장이다.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할 상황이 되지 않고 있다.

WSJ 기사

### **Bloomberg: Car Loan Delinquencies Hit Record for Riskiest Borrowers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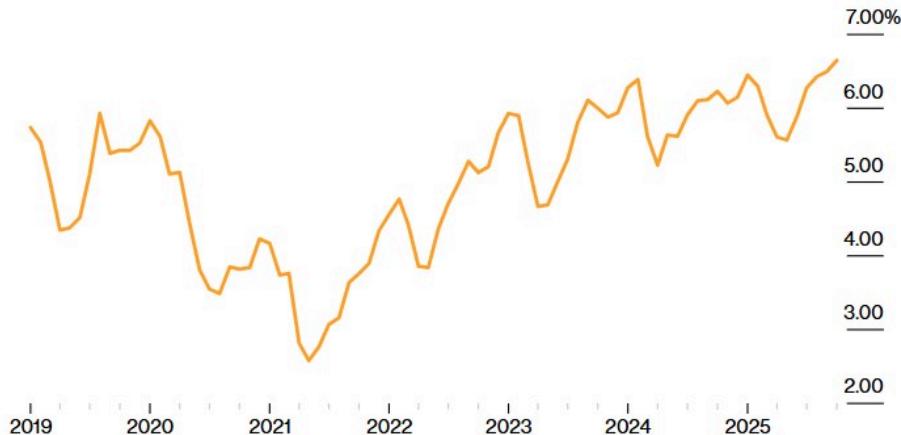
신용 등급 낮은 자동차 대출자들의 연체율 최고치

- 더 많은 미국인이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. 특히 신용 등급이 낮은 이들 중 60일 이상 연체된 비율이 19월에 6.65% 상승했다.
- 계속되는 인플레 압력과 학자금 융자 상황 압력 도래로 수백만명의 차량 대출 구매자들이 자동차 융자 상황에 허덕이고 있다. 한마디로 미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.
- 특히 연체 중에 신용 등급이 낮은 점유율이 지난 2019년 이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. 특히 신용 등급이 낮은 비율은 3분기 신용 등급 조사 대상자의 14.4%를 차지하고 있다.

### Americans Behind on Car Payments Hit Record

Subprime borrowers late on auto loans reach highest since 1994

▼ Delinquent subprime auto loans



Source: Fitch Auto ABS Indices

Bloomberg 기사

### Bloomberg: Atlanta Fed's Bostic to Retire When Term Ends in February

아틀란타 연준 총재, 2월 은퇴...금리 인하 신중 주의자

- 아틀란타 연준 총재인 Raphael Bostic는 내년 2월에 은퇴할 것이라고 말했다.
- 그는 59세로 지난 2017년 이래 아틀란타 중앙은행 수장을 맞아왔던 인물로 최초의 흑인 연준 고위 관리였다.
- 그는 “경제 성과를 이룬데 이바지 했다”고 자평하면서 연준이 다음 단계에 새로운 비전으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.
- 한편 그는 계속적인 인플레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연준 동료들에게 1) 금리 인하에 신중하고 2) 관세에 따른 위험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.

Bloomberg 기사

## [미국 금융]

### WSJ: Government Shutdown Nears End, Lifting Investors' Spirits—and Stocks

셧다운 종결 임박해 주식 시장 회복세... 여전히 불확실

- 의회의 연방 정부 셧다운 종결 합의가 임박해지면서 증시가 회복되고 상승했다.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살아나고 있다.
- 오늘 수요일 S&P 500은 0.2%, 다우존스 지수는 1.2% 상승 중이었다. .
- 기술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약한데 Coreweave는 어제 16% 하락했다.
- 그러나 오늘 12:00pm 가까워지면서 또다시 하락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. S&P 500 도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고, 나스닥은 0.5% 가까이 빠진 상태다. 최근 증시는 조정 단계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조정 단계가 언제 끝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,

WSJ 기사

### [트럼프 행정부]

#### **Bloomberg: House Poised to End Historic Shutdown Over Democrats' Objections**

연방 하원, 역사적인 정부 셧다운 종결 법안 표결한다

- 연방 하원은 사상 최장기간의 정부 셧다운으로 항공 산업이 혼들리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식품비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셧다운을 종결시키는 방안에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.
- 이 방안은 상원에서 조정되었고 트럼프가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운영 재개와 일부 연방 부처들도 오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에 오바마 의료보험의 세금 공제 연장을 허용하지 못하는 상태다.
- 이 법안은 또한 셧다운 기간중 해고된 공무원을 복직 시키고 일시 해고된 공무원의 임금 지급과 아울러 내년말까지 추가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### [무역 전쟁]

#### **Bloomberg: Trump Plans Move to Ease Prices on Coffee and Bananas, Bessent Says**

연방재무장관 “트럼프, 커피와 바나나 관세 인하 추진”

- 연방재무장관인 Scott Bessent는 트럼프 행정부는 커피와 바나나와 다른 식품들의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그는 “내년 1분기와 | 2분기에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”라며 “미국인들은 내년 상반기에 물가 완화에 대해 더 안정된 입장을 가질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- 그는 내년에 원천 징수율이 변경되면서 세금 환급금이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.

Bloomberg 기사

## [오일]

### **WSJ: Oil and Gas Demand Could Grow Until 2050, IEA Says IEA, “오일과 가스 수요 2050년까지 상승한다”**

- 국제에너지기구의 새로운 시나리오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 기술 채택이 둔화되면서 당초 오일 수요가 정점을 이룰 것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‘오일과 천연가스는 금세기 중반기까지 성장할 것’이라는 것이다.
- 바꿔말해 오일과 천연가스 수요는 오는 2050년까지 증가하면 그대신 석탄 수요인 20년대 후반전에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.
- 이 기구의 전망 변경은 미국이 화석 연료 정책에 의존키로 하고 전기차에 대한 예상 외의 성장 둔화 때문에 전망치를 바꾼 것이다.

WSJ 기사

## [중국 경제]

### **WSJ: America's Chip Restrictions Are Biting in China 미국의 반도체 수입 규제, 중국에 타격**

- 미국의 반도체 수입 규제 때문에 중국 정부는 중국내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SMIC 반도체 생산물을 어떻게 배분할지 개입하고 있다.
- 또한 중국 기업들은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수천개의 반도체를 묶어서 번들로 사용하거나 엔비디아 반도체를 밀수하는 등 우회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.
- 한편 미국 관리들은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.

WSJ 기사

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### **WSJ: Even When the Shutdown Ends, Flight Cancellations Won't 셧다운 끝나도 항공 운항 회복 시간 걸린다**

- 정부 셧다운에 따른 미 항공 운항이 회복되려면 수일 이상 또는 그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. 항공사들이 승무원 배치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.
- 또한 연방항공청은 충분한 숫자의 관제사가 복귀할 때까지 쉽게 항공 운항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더욱이 관제사 은퇴 상황으로 상황은 악화된 상태이다.
- 다행히 항공기 운행 취소율은 지난 일요일의 10%에서, 이번주 월요일 8.1%, 그리고 어제 화요일 5%로 회복되고 있다고 관련 데이터 제공업체인 Cirium은 밝혔다.

WSJ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